

<하기 글은 2018년 12월 31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>



지난 20일, 『삼성전자-화성 소통협의회』 12월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.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기약하는 자리였는데요. 그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

『삼성전자-화성 소통협의회』 12월 정기회의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, 함께 문화 행사 후 석식행사와 연계하여 송년회로 진행되었습니다. 회사와 지역사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. 격월로 진행된 정기회의와 지역사회 공헌활동,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과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행사까지 2018년을 수놓았던 다양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, 내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의 다짐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.



이어서 이해남 간사는 지역 측 소통협의회 위원들에게 이승백 의장의 퇴임 소식을 전하며, 신임 의장으로서 2019년 4월에 출범 예정인 5기 소통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홍영돈 그룹장(前 사회공헌센터 부단장)을 소개하고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



"회사 내 조직 개편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게 되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소통협의회는 삼성전자와 지역사회 간 의견을 나누고 상생과 발전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"

홍영돈 그룹장(DS커뮤니케이션팀)



이후 지역 측 소통협의회 위원은 환영 인사를 전하며 자유롭게 식사를 이어갔는데요. 다가오는 2019년,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힘써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12월 정기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내년에도 변함없이 소통을 위해 힘을 모을 『삼성전자-화성 소통협의회』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